



National Network of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women

NNKUMW

한인여선교회전국연합회
Newsletter

January, 2017



photo: 교도소 문서선교의 이영희 목사님과 2016년 북가주 연합회 임원들

1. 김리자 회장 새해인사
2. 연암감리교회 총감목회 특별 위원회
3. 북조지아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4. 남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신교경기
5.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송년예배
6. 교도소 문서선교 편지
7. 연암감리교회 한인목회강화협의회
8. 상식: 레몬즙
9. 함께하면 쉽습니다: \$ 1,000 모금운동

<http://www.nnkumw.org>



김리자 회장 새해인사



새해인사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11)

붉은 원숭이의 병신년이 시작된 것이 어저께 같았는데 벌써 정유년 2017 년이 다가왔네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칠 2017 년, 부 푸른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회원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후딱 지나가 버린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니 전국연합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참 풍성한 한 해였습니다. 전국연합회 임원

수련회로 시작하여, 동부 지역 지도자/ 서부지역 지도자 훈련으로 새 일꾼들을 발굴하고, 유엔세미나에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인종적인 인류의 갈등과 문제를 재검토하며, 3 차에 걸쳐 전도부인 사역으로 몽골, 카자흐스탄, 블라디보스톡에 선교의 영역을 넓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젊은 2 세들은 유엔에서 열렸던 60 회 여권신장위원회의 모임에 참석하여 세계적으로 여성 권리를 위하여 일어나고 있는 광범위한 여권신장 운동의 여러 모를 목격하고 도전을 받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2017년 새해에도 계속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와 몽골에 전개될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을 통하여 전국연합회가 많은 영혼들에게 평안과 희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 2017년도에는 네쉬빌에서 있을 전국지도자 대회, 그리고 Washington DC에서 연합감리교회 총회 사회부의 후원으로 우리 2세 젊은 여성들을 위한 세미나 및 지도자 훈련 등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전국연합회를 더 성장시키시고, 이 세상에 많은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긴요한 선교의 도구로 쓰시리라 믿습니다. 2017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좋은 선물들을 마련하셨으리라 큰 기대를 해봅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글: 김리자 권사, 한인여성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아콜라한인연합감리교회)

> English

New Year Greetings!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declares the Lord in Jeremiah 29:11. It feels like the year of red monkey started yesterday, but 2017 is upon us already. May the Lord's peace and grace be with all of you in the New Year!



2016 was the year when the NNKUMw was truly blessed with many important mission projects. The Lord blessed us with the officers' training in January and the east/west regional leadership training that gave us an opportunity to find God's new workers. He also blessed us with the UN Seminar that challenged us with social, political, economic and ethnic problems in the world.

Furthermore we pondered possible solutions and ways to put them into action. The Bible Women's Program of Christian leadership training in Kazakhstan, Mongolia, and Vladivostok have successfully carried out with His blessings, too.

Our young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60th session of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learned about global efforts to advance the status of women socially,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They have been challenged with and learned about many opportunities,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that the young women face in the contemporary world.

I sincerely hope and pray that the Lord will bless the NNNKUMw with same grace and love in the New Year, so that we can serve as the blessed vessel of peace and hope for many souls as we carry out the Bible Women's Program in Kazakhstan, Vladivostok, Mongolia, and China. We also plan to have the 2017 NNNKUMw National Training event in Nashville, TN and a special DC seminar for young women co-sponsored by the 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Through all these programs, I sincerely believe the Lord will nurture NNNKUMw as His beloved covenant community, and use us as valuable mission tools. May God's abundant blessings and love be with all of you!!

(Written: **Lija Kim**, President of National Network of KUMw, Arcola KUMC, NJ)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 특별위원회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 특별위원회 구성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는 2016년 5월 연합감리교회 총회 이후 동성애 문제로 교단의 분열과 교회의 화합을 다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11월에 위원회 32명 명단을 발표하였다.

총감독회 회장이신 Bruce R. Ough

감독은 성명서를 통해서 "연합감리교회 감독회의에서는 지난 3개월간의 심사숙고 끝에 8명의 감독, 11명의 정회원 목회자, 2명의 디컨 목사 그리고 11명의 평신도를 선출하였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11명의 평신도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에서 아시아인으로, 한인으로 한인여성교회 전국연합회 총무인 김명래 전도사가 선출되었다. 더우기 김명래 총무가 한인여성교회 전국연합회 소속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었다는 것은 한인여성교회 전국연합회가 세계적으로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는 전 세계에 속한 연합감리교회 감독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전 세계에 속한 연합감리교회 감독들, 목회자들 그리고 평신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Commission on a Way Forward"이다. 현재 연합감리교회는 총 1,240만명인데, 교인들중 40%가 미국 밖의 해외에서 살고 있다. 특별위원회의 조직 목적을 Ough 총 감독 회장은 "세계에 있는 여러 지역의 연합감리교회의 사역을 가능한 극대화하고, 여러 가지 맥락에서 다른 것을 가능한 허용하고, 최대한 화합을 바라는 마음으로 인간의 성에 관한 다른

신학적 이해에 접근하는 균형을 잡는 방안을 특별위원회가 교회를 위해서 만들 것 입니다”라고 발표하였다.

1972년 이래로 연합감리교회 장정에는 모든 이들의 신성한 가치에 대해 선포하며, 그러나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정의해왔다. 연합감리교회 교단은 “본인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동성애자 목회자의 안수와 동성혼 주례를 금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은 이 규정에 관해 오랫동안 논쟁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

세상적으로 동성애자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증가하고,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많은 연합감리교인들이 금지규정을 공개적으로 거역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100명 이상의 연합감리교 목회자들과 목사 안수후보자들이 본인이 동성애자임을 밝혔고, 다수의 연회가 동성애에 관한 금지규정을 따르지 않을 것을 촉구했으며, 서부지역총회는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동성애자와 결혼한 Karen Oliveto를 감독으로 선출하고 임명했다. 한편, 교단의 복음주의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구성된 새로운 단체 The Wesleyan Covenant Association은 교회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동성애자 안수와 결혼을 반대하며, 장정의 법을 어긴 목회자들을 처벌하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교단의 분리를 원한다고 위원회에 통고해왔다.

특별위원회는 2017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2018년 특별총회에 청원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연합감리교회 교단이 동성애자 문제로 분열된다면 한인연합감리교회에도 큰 위기가 될 것이다. 한인여선교회 회원들도 연합감리교회 교단의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 속에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글: 김명래 전도사,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총무)

> English



Special Committee of the Council of Bishops

After the General Conference, the Council of Bishops in May, 2016 made a special committee named, the Commission on a Way Forward, and in

November, the names of the Commission were reported.

Bishop Bruce R. Ough, the chairperson of the council of bishop, through the statement reported that the Council of Bishops after deep thought for three months selected 8 additional bishops, 11 ordained elders, 2 ordained deacons, and 11 lay persons. Among 11 lay persons, MyungRae Kim Lee who is an executive director of NNKUMw was selected as only the Asian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in US. Moreover, the larger significance of MyungRae Kim Lee selection is her role as the executive director of NNKUMw providing recognition for that organization among the larger Global United Methodist Church.

The council of bishops is made of bishops from all around the world. The Commission on a Way Forward was also made of bishops, pastors, and lay persons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from all around the world. Currently, the total membership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is 12,000,000 of which 7.2 million members live in the United States.

The purpose of the Commission on a Way Forward by Bishop Ough, the chairperson of the council bishop is to possibly maximize the ministri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in the world, to possibly allow different things in various contexts, to possibly reconcile different views of human sexuality and to possibly balance different theological understandings. Since 1972, the Book of Discipline proclaims a sacred value. However, the Book of Discipline states that "homosexuality is not compatible with the Christian teaching." The Book of Discipline prohibits homosexual persons in ordination and same-sex marriage.

The member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have been debating with this issue for a long time. However, secular law accepts same sex marriage in many states, and some states and other countries have legalized same-sex marriage. Also, some United Methodist Church members openly refute the Book of Discipline on this issue.



In recent months, more than 100 ordained pastors and candidates revealed themselves as homosexual persons, and some annual conferences made a resolution not to follow the Book of Discipline. Western jurisdiction voted for bishop, Karen Oliveto, who declared herself as a lesbian. On the other hand, the Wesleyan Covenant Association that is made up to raise an evangelical voice warns to separate from the denomination, if the denomination does not punish those who violate the Book of Discipline.

The Commission on a Way Forward will work from January, 2017 and they plan to report to special general conference in 2018. If UMC is divided due to the issue of human sexuality,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will face a great crisis. It is a time for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to pray for God's wisdom and guidance for our denomination in this difficult time. We have to be pure as doves and wise as snakes. Because the crisis in God may be a new opportunity.

In the past when we have faced struggles, we had to believe that God was still God, and God was with us, God is with us and that God will protect us.

(Written: **MyungRae Kim Lee**, Executive Director of KUMW)



북조지아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아틀란타 - 로즈웰 지방회
여선교회 연례회에 다녀와서

2016년 11월 12일에
아틀란타연회 여선교회에서 제일
큰 아틀란타 - 로즈웰 지방회
연례회가 알파레타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아틀란타 - 로즈웰 지방회

연례회에 아틀란타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젊은 그룹 인"인 어스"의 댄스 공연이 있었다.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북조지아연회 여성교회에서는 젊은 그룹의 모임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별히 이번 연례회에서는 2017년 임원 선서식이 있었고, 아틀란타한인연합감리교회의 반혜진 권사님이 지방회 서기로, 이성은 장로님은 지방회 부회장으로 임명되었다.

(글: 김매리안 사모, 북조지아연합회 회장, 북조지아 연회 한인 코디네이터)

> English

The Annual Atlanta-Roswell District UMW Meeting

The annual Atlanta-Roswell district UMW meeting was held on November 12, 2016 at the Alpharetta First UMC. The Atlanta-Roswell district is the largest in the North Georgia Conference.



After welcoming and greetings by Alpharetta First's UMW president, Pam Hodgson, Associate pastor,

Reverend Terri Hankel and the AROS UMW district president, Stephanie Dressler, "In-Us" performed an interpretive dance. "In-Us" is a group of young people from Korean Church of Atlanta that is very supportive of the UMW. Angela Cho is the leader and choreographer. The UMW sisters were very touched by their dance. We plan to start a new group with young Korean ladies in the North Georgia Conference.

There was also the presentation and installation of the 2017 slate of officers. Haejin Ban became the secretary and Grace Pyen became the vice president of the AROS District. Both are members of the Korean Church of Atlanta.

(Written: **Marian Kim**, President of North Georgia Conference KUMw Network, Korean Language Coordinator)



남가주연회 한인여성교회 연합회 선교걷기



제 8 회 남가주연합회 선교 걷기를 마치고

매년 맞이하였던 선교 걷기였지만 이제 연합회 임원이 되어 선교부 제 2 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제 8 회 선교 걷기에 참여하게 된 저의 마음은 그냥 여선교회 회원으로 참여했던 예전과는 무척 달랐습니다.

연합회 임원회를 통하여 교회마다 선교 걷기 참가자 수와 선교 예상 액수를 책정하여 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도 있었지만 제가 마치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의 애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음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주어진 목표액이 있기에 저는 그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후보에 올리고 광고를 하기 시작을 하였고 우리가 선교하려는 아시아의 가난하고 소외된 여성, 아동, 청소년들을 가슴에 품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부족하지만 기도하게도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시고 함께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생각지도 않게 특별히 담임목사님께서 예배시간에 선교 걷기대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광고를 해 주시고 사모님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여주시니 온 교인들이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여 주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정마다 조금씩이라도 동참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의 이름으로도 선교비를 내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한 선교액수를 훌쩍 넘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특히 선교 걷기 당일 전체적으로 15 개 교회에서 걷어진 선교액이 \$17,000 이 넘었다는 보고를 들으며 저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5 개의 교회에서 함께 하여 주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여선교회 회원만이 아니라 남선교회,

어린이들 모두 약 250 여명이 함께 즐거운 게임으로 친교를 나눈 후 예배를 통하여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진 후 Whittier Narrows Regional Park 의 아름다운 호수를 삼삼오오 짝을 지어 걷는 동안 우리 임원들은 점심으로 맛있는 비빔밥 도시락을 만드느라 분주한 가운데 웃음이 넘치는 임원들 간의 사랑도 싹트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임원이 되어 선교 걷기를 준비하고 행사를 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성경의 말씀을 체험하게 된 귀한 시간이었음에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교회의 참여와 선교헌금이 모여져 우리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의 아시아전도부인 선교가 확장되어지길 기도해봅니다.

(글: **송정미 권사**, 남가주연합회 선교부 제 2 부장, 드림교회)

> English



After the 8th Annual Mission Walk

Each year as a member of UMC, I attended the Mission Walk. However, this year's participation as a Committee Chairperson for the Southern California KUMw was very different and had a special feeling. I was a little burdened that each church had to meet the goal of a number of participants and the donation amount for the

missionary. However, I was so grateful that I felt like I was at a local missionary place. So, I decided to do my very best to meet the goal of those numbers.

First, I announced to our church's weekly bulletin and advertised about the Mission Walk. Then I started to pray for those neglected women and children in our targeted missionary countries in Asia. We prayed that the seed of God's gospel will be fruitful in the future. I realized that whenever I am doing God's work with a goal, he will provide me with resource of partnership and will open a way with



direction. Unexpectedly, our church's senior pastor passionately announced about the Mission Walk during the Sunday Service. This was almost a miracle that the entire congregation participated in donating in place of their small children. Adding their names to the individual donations. The total donation went over our targeted goal amount. I totally believe that God is with us and he works with us.

On the day of the walk, I was amazed that the total amount donated was over \$17,000! I praise the Lord for his work! It was a very special day with 15 churches gathered including pastors and the UMW members' families and their children. Approximately 250 members and families joined for the Mission Walk at the Whittier Narrows Regional Park. We had much fun playing games for the prizes during the fellowship time. The park had a beautiful lake perfect for ladies to walk together and chat. While the committees were busy preparing Bi-Bim-Bap for lunch, our sisterhood bonded as sharing our love for each other. I was nervous while I was preparing for the event since this was the first year after I served as a committee chairperson.

I can thankfully testify for the words in Bible,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My wish for the next year's Mission Walk is that many more churches will participate to expand UMW's vision in missionary works.

(Written: **Jungmi Song**, Cal-Pacific KUMw Network, Mission Committee Chairperson, Dream KUMC)



북가주연회 한인여성교회 연합회 송년예배



감사, 그리고 또 감사!

12 월 3 일 토요일 북가주 연회
한인여성교회 연합회 송년예배를 열린(구
버클리) 한인연합 감리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삶 자체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며 올
한해도 변함없이 북가주연회 한인여성교회
연합회와 동행하시며 축복해 주신 주님께

머리 숙여 찬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영상 보고를 통하여 올해의 행사를 기억하며, 지나간 시간들속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꿈만 같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계획 속에는 이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있었고, 우리의 열심과 헌신을 기뻐 받으시며 넘치는 성령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열린교회 권혁인 담임목사님께서 눅 23: 39-43 의 말씀을 가지시고 귀하고 유익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의 두 행악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노력없이 열매와 결실만을 원하는 세상의 풍조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고난이요, 무거운 짐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쏟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외치시며, 북가주연회 한인여성교회 연합회를 통하여 북가주연회에 감사가 넘치기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결단의 찬송을 부르며 우리의 헌신을 재 다짐하고, 말씀과 기도속에서 북가주연회 한인여성교회 연합회가 꾸준히 부흥성장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허락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기록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도구가 되는 북가주연회 한인여성교회 연합회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다가오는 2017 년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감사의 하루였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 하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최만금 권사, 북가주연회 한인여성교회 연합회 회장, 산타클라라교회)



> English



Thankful and Thankful again...

On Saturday, December 3, the Annual Cal-Nevada Conference Korean UMW Network's End of Year Service was held at the Open (Old Berkeley)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We praised and worshipped our God, while offering up everything we had, confessing that all good things came from Him alone.

We watched a video recapping the year and its events, and it became clear that this past year and what was held in store, was a result of the grace of God. It was truly a dream come true. Despite our weaknesses and shortcomings, the grace and love of God was and is endlessly

poured out in our lives and he accepts our efforts and sacrifices with joy; ensuring that there is a bearing of fruit of the Holy Spirit.

The reverend of Ope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Reverend Kwon Hyuk In, spoke about a passage from Luke 23:39-43 delivering a message of significance and salvation.

Reverend Kwon spoke on differing attitudes between the two men who were beside Jesus on the cross, leading us to recall and consider the crosses we bear in our own lives as well as the attitudes that we take on regarding them. To those who do desire the fruit and the harvest, but do not desire to put in the effort, the cross is suffering. It can only be a heavy burden because of this desire to follow worldly trends. However, through Reverend Kwon's message, it became clear that the cross can become evidence of gratefulness.

Through the Annual Cal-Nevada Conference Korean UMw Network's End of Year Service, our hearts became opened and filled with grace, inspiring joy and shouts of praise.

Finally, we closed with determination and conviction, singing songs of praise and rededicating our lives back to God. In the midst of the message and prayer, the Annual Cal-Nevada Conference Korean



UMw Network's End of the Year Service closed with a sincere effort to continue our revival of the spirit. We lifted up prayers hoping that the Lord would take joy in us, that the mission He has bestowed upon us would thrive, and that He would use us as his instruments.

With anticipation for the incoming year of 2017, entrusting its events and happenings to God and God alone, we concluded the service with love and thankfulness.

God will use our obedience!

Thank you God. Thank you.

(Written: **Man Kum Choi**, Cal-Nevada Conference Korean UMw Network)



“교도소 문서선교에 대한 감사의 편지”

김리자 회장님, 김명래 총무님, 그리고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임원들과
회원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귀한 믿음의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의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된 주님의 성탄의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셨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한인여선교회가 더욱 더 활발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만방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 아낌없는 후원을 해 주시는
모든 여선교회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한 이들과 갇힌 이들의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한 일환으로
"예수님과 걷는 길 1-4"를
스페인어로 만 권을 출판하고자
\$10,000 을 모금하고 있는 가운데,
\$5,200 의 후원금을 보내 주심에
놀라움과 성도님들의 마음과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선교 후원금과 또 여러분들의 후원 하심으로
스페인어책이 출판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여러 면에서 교도소 선교를 후원해 주고 계신 김명래
총무님과 김리자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기회가 많은 미국에서 교도소에도 흉악한 죄인보다는 가난으로 갈 곳
없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여자분은 차 보험과 라이선스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채 차를 운전하여 \$800-\$1,000 의 벌금을 받았으나, 지불할 돈이 없어서 53 일의
형을 살아야 하고도 \$150-\$300 의 벌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처지에서도
변화 프로젝트에서 제공한 서적을 통해 큰 감명과 격려를 받고 감사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성경을 읽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인여선교회 회원 모든 분과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정성을 모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재소자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다면 참으로 보람되고,

문서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소망과 격려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특권임과 동시에 영광된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변화 프로젝트 문서 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와 격려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글: **이영희 목사**, TPPM 대표, Adams County Detention Facility Chaplain, 록키마운틴연회 정회원 목사)

> English



Greetings in the name of the Lord!

I pray for the grace and peace of God upon the precious, devoted members of NNKUMw who serve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each of their families. I thank God because I believe we have all been blessed this Christmas in the grace of God. I also pray for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to actively plant more seeds of the Gospel of

God's love in the New Year. Especially, I thank all of its members for supporting us as we plant the seeds of the Gospel and produce many fruits through the Transformation Project Prison Ministry (TPPM) book project.

Your hearts, efforts, and generous sponsorship of \$5,200 towards the goal of \$10,000 are greatly appreciated. Your generous support is currently being used to publish the four books of *Journey With Jesus Books 1-4* in Spanish to reach people in poverty and those in prison. I have sincere gratitude for the support of Executive Director MyungRae Kim Lee and President Lija Kim and for all those who donated to this project.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incarcerated because of their poverty rather than their crime. A woman who did not have an auto-insurance policy and an effective registration was caught by a police officer while she was driving. Because she was not able afford the fine of \$800-\$1000, she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53 days in addition to paying a portion of her fine. Even though she is still in prison, she was inspired and encouraged by reading the books offered by TPPM. She gave thanks to God and our ministry. She was also pleased to come closer to the Lord in reading Scripture. I am excited to share this news with the members of the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As we gather our attention, drawing the incarcerated, who still are wandering in the darkness, closer to the Lord is meaningful.

I also thank God and give Him glory for our privileged, blessed opportunity, and authority given by the Lord to provide the prisoners with hope and encouragement through providing the books. I again, truly thank you. I pray for the grace of the Lord to pour out upon you. I ask for your continual prayers, encouragement, and sponsorship to continue the mission of TPPM to save the lost and bring spiritual healing to many who are desperately in need of God.



(Written: **Rev. Yong Hui V. McDonald**, TPPM President, Adams County Detention Facility Chaplain, Elder of Rocky Mountain Conference UMC)



연합감리교회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연합감리교회 한인목회강화협의회에 손미애 권사가 평신도 여자대표로 선임되었다.

손미애 권사는 현재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서기로 봉사하고 있다.

한인목회강화위원회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안에서 웨슬리의 전통과 한국적 영성을 합하여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중점 사역분야와 목표는 회중계발, 지도력 향상, 차세대사역 육성, 사역자료 개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역, 세계적인 협력관계

육성이다.

Grant Hagiya 감독(California-Pacific 연회), 김광태 목사(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장), 김동윤 장로(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손미애 권사(월서연합감리교회), 김한성 목사(와싱턴한인교회), 김지나 감리사(뉴저지연회), 그리고 Jonathan Park 목사(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등이 2017-2020 회기의 새로운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는 한인목회강화협의회와 동역자로서 사역을 함께 펼쳐나가고 있다.

(글: 김명래 총무,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 English

UMC Korean Ministry Plan

UMC Korean Ministry Plan appointed Julie Sohn who is now the secretary for the NNKUMw as a lay woman. The Korean Ministry Plan's vision is to integrate the Wesleyan tradition and Korean spirituality to make disciples of Jesus Christ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The areas of the Ministry and Goals for 2017-2020 is congregational development, leadership formation, nurturing next generation ministries, developing ministry resources, working with the poor and fostering global partnerships. The new committee members, who have been appointed from 2017 to 2020, are Bishop Grant Hagiya (Cal-Pacific Conference), Rev. Kwangtae Kim (President of KUMC National Association, First KUMC of Northern Illinois Conference), Dong Yun Kim Jangno (First KUMC of Northern Illinois Conference, Lay man), Julie Sohn Kwansanim (Wilshire UMC of Cal-Pacific Conference, Lay woman), Rev. Hansung Kim (KUMC of Greater Washington, Virginia Conference), Rev. Jina Kim (District Superintendents, The Greater New Jersey Conference), and Rev. Johnathan Park (KUMC of San Diego, Cal-Pacific Conference). The NNKUMw plans to work co-operatively with the UMC Korean Ministry Plan.

(Written: **Myungrae Kim Lee**,
Executive Director of NNKUMw)



상식: 레몬즙



민간요법으로 갈색반점 없애는 방법

갈색반점은 흔히 노화현상이나 기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일광검버섯 이라 불린다. 흔히 50 대 이상에서 나타나고, 밝은 피부톤을 가진 사람, 또는 햇빛이나 태닝에 의한 자외선 방사능에 많이 노출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인체에는 무해한 반점이다. 검버섯은 피부 표피층에서 발견되는 색소로 '도드라져' 보이고 점을 만드는 멜라닌 색소 때문에 갈색으로

보인다. 다행히, 몇가지 가정요법으로 검버섯이 올라오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방법 1. 레몬즙 사용하기

레몬즙을 검버섯에 직접 바른다. 레몬즙은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산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 두 달 이내에 검버섯이 줄어들 수 있다. 레몬에 있는 비타민 C 가 직접 피부를 하얗게 탈색시킨다. 레몬을 얇게 썰어서 검버섯에 직접 올려놓는다. 약 30 분 정도 그렇게 놔두고, 그런다음 흐르는 물로 씻어낸다. 레몬즙을 바른 상태에서 직사광선에 노출하는 것은 조심한다. 직사광선 아래서 레몬즙을 피부에 직접 닿게 하면 심각한 피부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한편으론 검버섯 탈색을 직사광선에서 해야 더 효과적이라는 상반된 보고도 있다. 레몬즙을 바른 검버섯 부위를 직사광선에 노출하는 것은 한번에 10 분정도로 제한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방법 2. 레몬즙과 설탕 혼합물을 사용한다.

레몬 1 개를 그릇에 짜서 즙을 내고, 설탕 2-4 테이블 스푼을 천천히 레몬즙에 넣어 반죽이 될 때까지 저어준다.

-붓이나 면봉으로 혼합물을 검버섯에 발라준다.

-혼합물을 30 분정도 놔두고, 그런 다음 시원한 물로 씻어낸다.

-혼합물이 피부를 건조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처치 후에는 반드시 피부보습제를 발라준다

방법 3. 꿀, 설탕, 레몬즙으로 반죽을 만든다

그릇에 레몬 1 개로 즙을짜내고 설탕, 꿀 2 테이블 스푼을 넣어 끈적이는 반죽이 되도록 만든다

-붓이나 면봉으로 검버섯이 있는 부분에 혼합액을 발라준다

-혼합물을 30 분 정도 놔두고 그런 다음 시원한 물로 씻어낸다

-꿀은 보습효과가 있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준다.

(상식에 대한 글은 저자가 조사하여 편집한 내용입니다)

(글: 이귀옥 권사, 전국연합회 문화부장, 뉴잉글랜드 연합회 임원, 북부보스톤교회)

How to Get Rid of Liver Spots: A Folk Remedy

Liver spots are often associated with aging, but they are actually called sun-burn blotches. It is harmless to the human body, which usually appears in people the age of 50 or older, and appears as a noticeable spot on your skin. This is caused by ultraviolet radiation from sunlight or tanning. Spots are caused by a pigment found in the skin's epidermis and are brown because of the melanin pigment that makes it look 'dotted.' Fortunately, there are some home remedies that can help reduce the risk of brown spots coming up.



Method 1: Using Lemon juice

Lemon juice applied directly to brown spots. Lemon juice has citric acid that breaks down melanin pigment and the bonds in dead skin cells. Vitamin C in lemon directly discolors the skin. Slice the lemon thinly and put it directly on the brown spot. Leave it for about 30 minutes then rinse with running water. Be careful not to expose the lemon juice to direct sunlight. It is reported that direct exposure to lemon juice under direct sunlight can cause serious skin burns.

Method 2: Use a mixture of lemon juice and sugar

Squeeze one lemon into a bowl and add 2-4 tablespoons of sugar, slowly into the lemon juice and stir until well blended.

- Apply mixture to brown spot with brush or cotton swab
- Leave the mixture for 30 minutes and then rinse with cold water
- The mixture may dry the skin, so be sure to apply a skin moisturizer after treatment

Method 3: Make dough with honey, sugar, lemon juice

Fill a small bowl with a lemon juice and put 2 tablespoons of sugar, and honey to make a sticky dough.

- Brush or cotton swab to apply the mixture to the area with brown spots
- Leave the mixture for 30 minutes and then rinse with cool water
- The honey has a moisturizing effect that prevents the skin from drying out

(Written: **Kwi Yun**, New England Conference KUMw Network Officer, North Boston KUMC)



1884년, 오하이오 연회 리벤나 지방의 제일연합감리교회의 여선교회 회원이었던 루시디아 볼드윈은 어둠 속에 살던 한국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88 을 지정헌금하였습니다. 가족을 잃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던 볼드윈은 소망을 잃은 한국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여 헌금하였습니다. 성경의 밀가루 반죽에 넣어진 누룩처럼, 한국여성을 향한 볼드윈의 헌신은 커다란 사랑이 되어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1885년, 한국으로 파송을 받은 감리교 여선교사 메리 스크랜튼은 이 헌금으로 이화학당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절망뿐인 한국이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교육하였으며 현재의 이화여자대학교로 발전하여 여전히 영향력 있는 수많은 여성리더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루시디아 볼드윈과 메리 스크랜튼의 선교열매인 우리 한인여선교회 회원들, 한인여선교회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1993년, 시작된 한인여선교회는 지난 23년간 여선교회원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로 양육해 왔으며 2세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도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여성 목회자, 미국 여선교회 본부 회장 및 이사, 연회 및 지방회 임원 등을 배출해 내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전국지도자훈련, 국외에서는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을 실시하며 또 다른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한인여선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2016년, 2년마다 실시되는 **전국지도자훈련**을 통해 한인여선교회 회원과 2세 여성들은 함께 모여 나누고 배우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전국지도자훈련을 위해서는 매번 6만불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은 한인여선교회 회원 한 사람이 2년 동안 \$1,000 불을 헌금해준다면 가능합니다. 평신도 지도자로 훈련받은 여선교회 회원은, 1884년도의 우리처럼 어둠속에 살고 있는 전세계 여성과 아동,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는 제 2의 볼드윈, 메리 스크랜튼이 될 것입니다. 한인여선교회와 함께 우리의 헌신이 커다란 사랑으로 전해지는 선교의 새 역사를 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000 헌금 방법)

매달 \$45 또는 1년에 \$500 을 2년동안 전국연합회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전국연합회는 501C 의 비영리기관으로 가입되어있어서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Check 발행은 NNKUMW, 주소는 NNKUMW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

후원신청서 다운받기

자세한 문의는 김명래 총무 (mrkim81@gmail.com/ 914-473-7401)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 김명래 전도사,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총무)

* 2017 년도 후원자 명단: 안용자, 김명래,

> English

Easier if we do it together: \$1,000 fund raising for NNKUMw”

The National Network of the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has held the leadership training every two year since 1993. The last event was held in September in Nashville, Tennessee. The leadership training was made possible by financial support of the Women’s Division and donations from KUMW members. Many leaders who received training are currently working as pastors, officers at the jurisdictional and conference level, and Women’s Division board of directors. Many young Korean American women also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event.

The NNKUMw is a mission fruit of the UMW. Its dramatic growth has a beautiful story behind the faith in action of one UMW unit. In 1884, Lucidia Baldwin, a member of the Ohio Conference, gave the designated offering of \$88.00 to be used to educate Korean women in Korea. She



was having a difficult time after deaths of her husband, daughter and grandson all at the same time when she heard about the plights of Korean women. She sold her husband’s property and gave the offering to the Ohio UMW Conference. With this offering,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North) was able to send Mary Scranton as its first woman missionary to Korea and started Ewha School for Girls in 1885. She can be compared with the woman in the Bible who made the bread with yeast and shared it with her neighbors. We can say we are offspring’s of Mrs. Baldwin’s mission offering, so we owe her the debt of mission.

The members of the NNKUMw are learning, sharing, and growing together with the leadership training. We are doing our best to bear another mission fruit by the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and the Bible Women’s Program abroad. To be able to achieve our goals, the leadership training plays a vital role.

Since 2007, the NNNKUMw had the leadership training event without the support of the UMW National Office. We need \$60,000 for the 2017 national training event. We need your help. If many members of the NNNKUMw donate \$1,000 over two years, the training event will be possible.

It is easier if we try together!

We can become another Mrs. Baldwin in spreading the good news of Christ to women, children and youth who are still living in the dark. We ask you to write a new chapter of mission history by enabling the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to be the tool to develop future leaders for Christ.

(Ways to donate \$1,000 mission fund)

2017 \$ 1,000 Fund Campaign supporters: Yongja Kim, Myungrae Kim Lee

Monthly donation of \$45 or yearly donation of \$500 for 2 years

NNKUMw is 501c a non-profit organization registered with government. Your donation is tax deductible.

Send checks "Payable to NNNKUMW, NNNKUMw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ew York 11364

For more information: e-mail to mrkim81@gmail.com or call 914- 473- 7401

Copyright © 2008 www.nnkumw.org National Network of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women All rights reserved.

한인 여성교회 연락처: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 • 전화 : 914-473-

7401 • 메일 : members@nnkumw.org

발행인: 김리자 회장/김명래 총무/한글교정-안영숙/영문교정-Paul Lee/Web Master-김시춘